

배포일시	2019. 9. 9.(월) 15:30 (총 3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기후서비스과	담당자	과장 김재영 사무관 김연희	전화번호	062-720-0669

2019년 광주·전남 폭염 및 열대야 특성
7월 하순~8월 중반 무더위, 폭염보다 열대야가 기승

□ 2019년 폭염 및 열대야 현황

-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¹⁾의 폭염일수는 6.7일로 평년(5.9일)과 비슷하였고, 열대야일수는 14.9일로 평년(8.5일)보다 많았습니다.

【표 1】 2019년 광주·전남 폭염 및 열대야 발생일수(단위: 일)

구분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5월	6월	7월	8월	1~8월	5월	6월	7월	8월	1~8월
2019년	0	0	0.3	6.4	6.7	0	0	5.1	9.7	14.9
평년	0	0.1	2.3	3.6	5.9	0	0	3.4	5.0	8.5

- 폭염일수는 광주에서 12일로 가장 많았고, 폭염이 지속된 기간도 10일(8월 1일~10일)로 가장 길었습니다.
- 열대야일수는 여수에서 25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와 목포에서도 20일 이상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수에서는 열대야가 21일간(7월 26일~8월 15일) 이어져 열대야 지속기간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표 2】 2019년 광주·전남 주요 도시별 폭염 및 열대야일수 현황(2019.8.31.까지)

지역	폭염			열대야	
	발생일수	최장지속일수(기간)		발생일수	최장지속일수(기간)
광주	12일	10일 (8.1.~8.10.)		22일	7일 (8.9.~8.15.)
목포	6일	2일 (8.8.~8.9.)		24일	14일 (7.23.~8.5.)
여수	3일	2일 (8.13.~8.14.)		25일	21일 (7.26.~8.15.)
완도	1일	1일 (8.14.~8.14.)		9일	6일 (8.9.~8.14.)
장흥	10일	6일 (8.2.~8.7.)		12일	5일 (7.24.~7.28.)
해남	9일	8일 (8.2.~8.9.)		9일	3일 (8.10.~8.12.)
고흥	6일	3일 (8.13.~8.15.)		3일	2일 (8.1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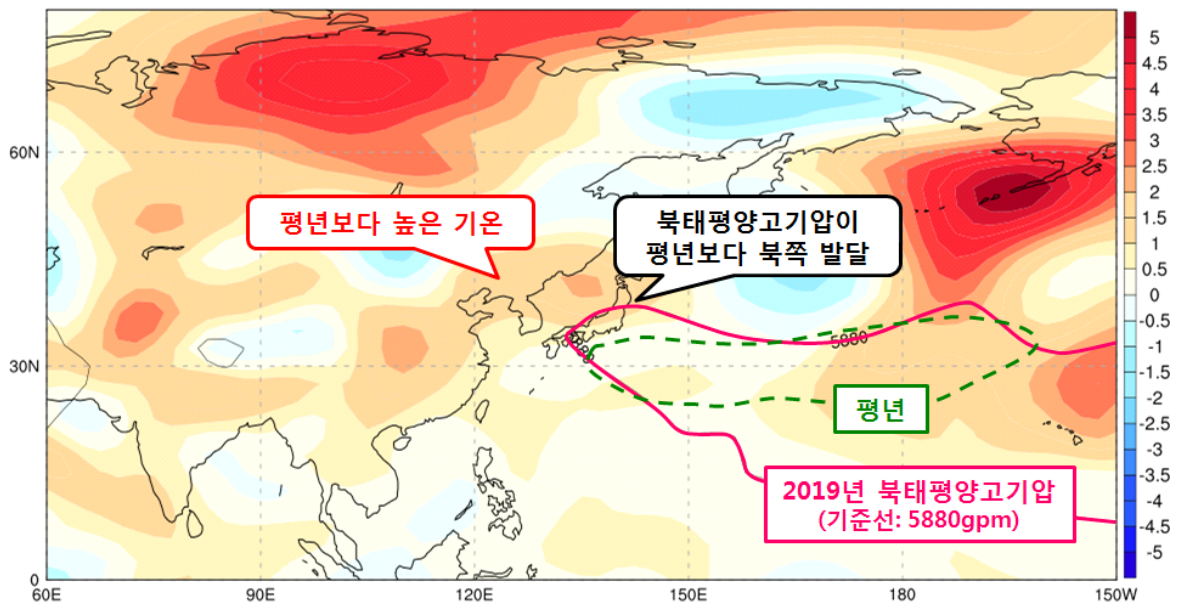
1)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대폭 확충한 시기로, 광주·전남 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7개(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지점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표 3】 광주·전남 열대야 최장지속일수 순위 경신 지역(관측 이래, 최고 3순위)

지역	관측개시일	1위		2위		3위	
		기간	일수	기간	일수	기간	일수
목포	1904.04.08	18.07.20~08.15	27	94.07.27~08.10	15	19.07.23~08.05	14
여수	1942.03.01	18.07.18~08.15	29	19.07.26~08.15	21	16.08.03~08.23	21
영광	2007.11.26	11.07.25~07.31	7	19.07.22~07.27	6	17.07.20~07.25	6
장흥	1972.01.21	13.07.27~08.01	6	19.07.24~07.28	5	11.08.08~08.12	5

□ 2019년 폭염 및 열대야 특성

- (7월 후반~8월 중반에 집중)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까지 발달하여 무더운 가운데 4개의 태풍(△제5호 다나스, △제8호 프란시스코, △제9호 레기마, △제10호 크로사)이 북상하며 온난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일사효과까지 더해져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 여름철 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 6월 중반까지 상층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며 찬 공기가 자주 유입되었고, 6월 후반부터 7월 중반 사이에는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거나 구름 낀 날이 많아 큰 무더위가 없었습니다.
 - 8월 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화되면서 기압골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고, 우리나라 남쪽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비가 자주 내리면서 무더위가 꺾였습니다.



【그림 1】 7월 21일~8월 20일 500Pa 지위고도(실선: 2019년, 점선: 평년)와 850hPa 기온 편차(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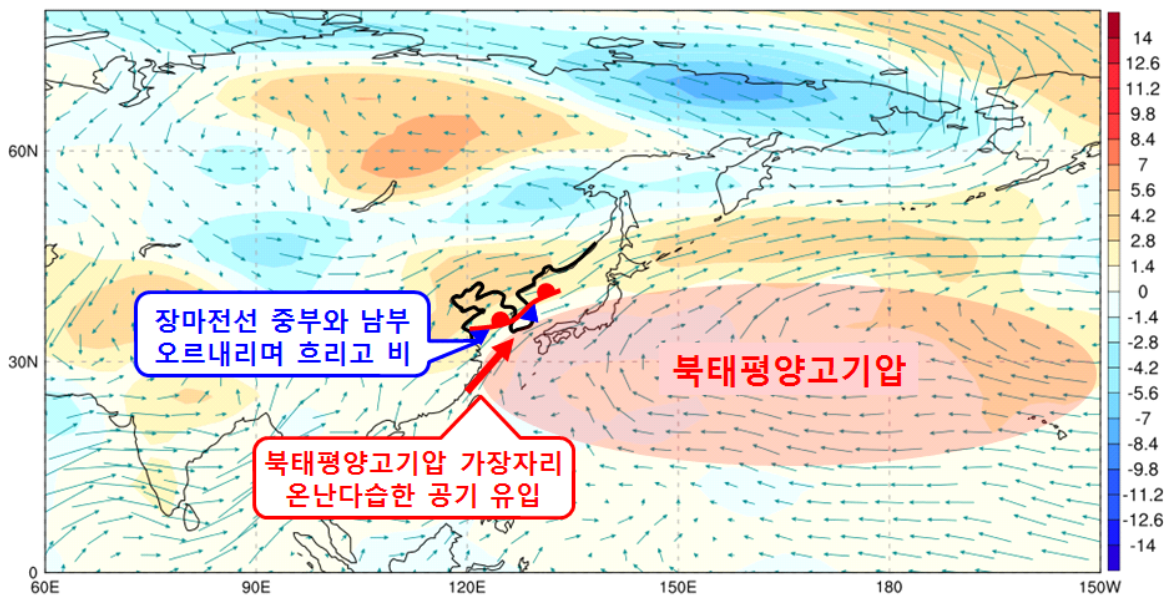
- (폭염보다 열대야가 기승) 올해 폭염은 장마가 끝난 후 8월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열대야는 폭염보다 열흘가량 일찍 시작되면서 열대야일수가 폭염일수의 배로 많았습니다.

【표 4】 2019년 광주·전남 폭염 및 열대야 시작·종료일(2019.8.31.까지)

지점명	폭염		열대야	
	첫 발생일	마지막 발생일	첫 발생일	마지막 발생일
광주	2019.08.01	2019.08.14	2019.7.22	2019.8.15
목포	2019.08.03	2019.08.13	2019.7.23	2019.8.21
여수	2019.08.02	2019.08.14	2019.7.26	2019.8.21
완도	2019.08.14	2019.08.14	2019.7.27	2019.8.21
장흥	2019.07.04	2019.08.14	2019.7.24	2019.8.21
해남	2019.08.02	2019.08.13	2019.7.23	2019.8.21
고흥	2019.08.02	2019.08.15	2019.7.27	2019.8.11

- (열대야 시작) 7월 중반까지 주로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7월 후반에는 중부지방까지 북상하면서 **고온다습한 남서기류가 유입** 되어 7월 후반부터 열대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 (폭염 시작) 그러나 7월 말까지는 장마전선이 중부와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잦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였고, 본격적인 폭염은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8월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2019년 장마 종료일: 제주도 7월 19일, 남부지방 7월 28일, 중부지방 7월 29일



【그림 2】 7월 21일~28일 850hPa 기온 편차(채색)와 평균 바람장(벡터)